



# 돼지의 질병 · 방역관련

## 문/답/풀/이

답변 : 예재길 박사  
(바이엘 코리아 학술부)

**문 1** 분만후 1일령, 2일령의 자돈에서 황색의 심한 설사를 하는 돈방이 있습니다. 일부 분만돈방에서만 설사하고 있지만 치료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치료,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경기도 여주 : 이현석)

**답** 포유자돈에서 설사증상을 보이는 경우 그 원인은 다양합니다. 가장 많은 원인으로는 병원성 대장균 감염에 의한 설사병입니다. 또 돼지 전염성 위장염이나 돼지 유행성 설사병 감염에 의한 설사가 많습니다. 요즘 같은 겨울철에 분만사의 온도가 낮아 신생자돈이 추위에 노출되어도 설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만 직후 초유급여를 하지 않아도 설사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는 모돈의 젖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하의 양돈장에서는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설사병으로 판단됩니다. 돼지 전염성 위장염이나 돼지 유행성 설사병일 경우는 분만돈사 전체에서 대부분의 자돈이 설사하게 됩니다. 이 병의 치료는 항균제를 투여하여 병원성 대장균을 없애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항균제를 설사병 치료에 사용해 왔기 때문에 항균제에 대한 내성이 많이 생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 양돈장의 자돈의 설사변을 동물병원이나 가축위생 시험소, 가축질병 병성감정검사소(바이엘 임상병리실 등)에 의뢰하시어 항균제 감수성 검사 후 효과적인 약제를 사용하셔야 확실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포유자돈의 경우 포도당 주사액을 복강주사하는 것도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본 질병의 예방대책으로는 분만모돈에 대장균 백신을 분만전에 2회 접종하여야 합니다. 분만전에 항균제를 포유돈 사료에 혼합하여 급여할 수도 있습니다. 분만사를 청결하게 하여 주고 보온에 신경을 써야합니다. 또 분만사에 소독을 1일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이때 자돈에 안전한 소독제를 선택하여 돈방내 분무소독 및 모돈의 유방소독을 실시하여 주고, 모돈과 자돈을 이동시킨 후에는 철저한 수세와 건조 후 강력한 소독약으로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2** 겨울철만 되면 호흡기 질병의 발생이 많고 피해도 큼니다. 특히 흉막폐렴에 의한 손실이 많습니다. 돼지 흉막폐렴의 효과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경기도 강화 : 강창희)

**답** 돼지 흉막폐렴의 대책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항균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약제 감수성 검사로써 약제를 선택하여야 하며, 사용방법도 흉막폐렴 발병 상황에 맞게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돼지가 감염되었다면 사료에 첨가하여야 하며, 일부 돼지가 감염되었다면 주사로써 투약해야 합니다.

흉막폐렴균만 감염되었다면 항균제로 치료가 잘됩니다. 그러나 다른 질병과 복합감염병이라면 치료가 잘 되지 않고 폐사율도 높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투약만이 이 질병을 빨리 치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돼지 흉막폐렴

백신은 그 동안 많은 개량을 하였으며 효능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홍막페렴백신으로 홍막페렴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방접종으로 급성 홍막페렴의 발병률 감소, 성장촉진, 출하일령 단축, 홍막페렴 병변 축소, 항균제 치료에 의한 치료효과 증대 등의 효과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홍막페렴균이 함유된 호흡기 복합백신을 모든에 분만전에 2회 접종하여 주고, 자돈에는 20~30일령에 1차, 35~45일에 2차 접종하여 줍니다. 돼지 콜레라 백신접종일 사이에 접종하면 효과적입니다.

셋째, 사양환경과 사양관리의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즉 적당한 환기와 철저한 소독이 중요합니다. 사양관리가 우수한 양돈장에서는 돼지 홍막페렴의 발생은 없으며 산발적으로만 발생되고 만성형의 홍막페렴 병변도 적게 관찰됩니다. 또 비육사내 적정두수의 사육, 환기장치 부착 및 가동, 돈방내 가스 및 먼지의 제거 등으로 홍막페렴 및 일반적인 호흡기 질병의 발생을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문 3** 최근 저희 양돈장에는 육성돈에서 관절염의 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많아졌습니다. 돼지의 관절염의 원인과 대책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충남 보령 : 이종기)

**답** 육성돈에서 관절염을 일으키는 원인으로서는 세균감염으로 인한 관절염과 외상으로 인한 상처를 통해 화농성 세균이 2차 감염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균 감염에 의한 관절염의 원인균에는 연쇄상구균, 돼지단독균, 마이코플라즈마균, 포도상구균, 코라이네박테리움균 등이 있습니다. 관절염의 주요 증상은 파행, 관절의 부종, 보행장애 등의 임상증상을 보입니다. 상처에 의한 관절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바닥과 벽에 날카로운 물체를 없애 주어야 합니다.

본 질병의 치료로는 항균제와 동시에 진통해열제 및 단백분해 효소제를 투약하여야 합니다.

돼지단독에 의한 관절염의 경우 철저한 돼지단독백신 접종으로 돼지단독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영양공급은 관절염의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 4** 돼지의 글래서병이란 어떤 질병인지 궁금합니다. (경북 안동 : 이삼섭)

**답** 돼지의 글래서병은 다발성 장막염 및 다발성 관절염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병은 1910년 글래서(Glasser)씨가 처음 발견한 질병으로 여러부위에 관절염을 일으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병의 임상증상은 발열, 식욕부진, 파행, 움직이기 싫어하는 증상, 관절의 부종 등입니다. 드물게는 임상증상 없이 갑자기 폐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검해보면 폐장, 심장, 관절, 장간막 등에 병변이 나타납니다. 즉 폐홍막의 비후와 섬유소의 출현, 심장에서는 수종성 심낭염, 섬유소성 심낭염, 심장의 심한 유착, 심장의 확장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군데의 관절에서 관절낭액의 저류 및 화농이 관찰되며, 복수와 흉수도 볼 수 있습니다.

본 질병의 진단은 양돈장에서는 쉽지 않으며 원인 세균의 분리로서 가능하지만 원인 세균인 *Haemophilus parasuis*의 분리 배양이 실험실에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임상적으로는 홍막페렴,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증, 돼지 단독, 연쇄구균성 뇌막염 및 관절염 등과 아주 유사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본 질병으로 진단이 되면 앰피실린계열이나 테트라사이클린계열 그리고 퀴놀론계열의 항균제로 치료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항균제 투여 방법은 개체별 근육주사하는 방법과 음수에 타서 급여하는 방법이 있으나 포유 자돈에 발병하는 경우 음수에 타서 장기간 급여하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 질병의 예방대책으로는 외부돈 도입시 철저한 검색이 필요하며 도입 즉시 항균제의 주사로 잠복감염된 원인균체를 사멸시켜야 할 것입니다.